



예수님을 닮아요!



포콜라레
천주교마리아사업회

“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.”
(루카 14장 11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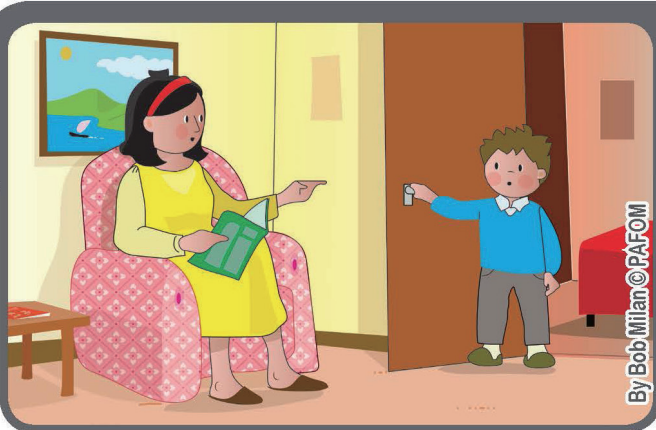
예수님은 하느님 이셨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.



예수님은 우리가 결혼식 잔치에 초대 받는다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끝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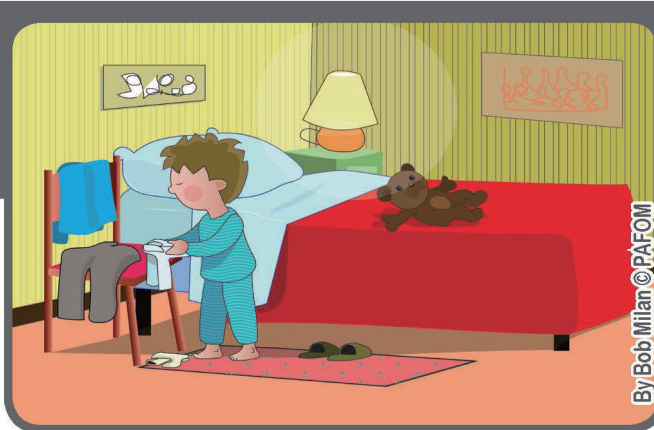


우리를 초대 한 이가 와서 우리가 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, 그 사람은 “친구여, 여기 앞으로 와서 앉게나” 라고 말할 것이에요. 그러면 우리는 행복 할 것이에요. (루카 14: 8-10 참조).



이탈리아의 안토니오의 이야기예요.

어느 날 저녁 안토니오는 엄마에게 잠옷 입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피곤하다고 하시며 혼자서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

안토니오는 엄마의 말을 듣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.



그런 다음 엄마에게 가서 저녁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. “엄마도 피곤함을 예수님께 바쳐드리세요. 나도 숙제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했어요.”